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비 아시아 투어 내달 日서 시작

가수 비가 오는 8월 일본에서 아시아 투어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한다.

가수 비는 2007년 월드투어 이후 2년 만에 다음달 29일과 30일 이틀 연속 사이타마 슈퍼아레나에서 'LEGEND OF RAINISM 2009 RAIN ASIA TOUR IN JAPAN' 을 열고 지난해 10월 선보인 5집 앨범 'RAINISM'을 중심으로 화려한 무대를 꾸민다.

현재 일본 공연의 공식 사이트(rain2009.jp)도 오픈돼 운영 중이며, 티켓은 다음달 16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한편, 가수 비는 일본 공연을 시작으로 한국, 중국, 동남 아시아를 돌며 아시아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4녀4색' 매력적인 Girl~

여성그룹 2NE1

두달새 3곡 음악차트 1위

"무대서 신나게 놀 뿐이죠"

4인조 여성그룹 투애니원(2NE1)은 데뷔 두달 만에 3곡을 각종 음악차트 1위에 올려놓았다.

데뷔 전 빅뱅과 함께 부른 휴대전화 광고음악 '롤리팝(Lollipop)'으로 존재를 알렸고, 데뷔곡 '파이어(Fire)'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최근 발표한 첫 미니음반 타이틀곡 '아이 돈트 케어(I don't care)'로는 여러 세대에 이름을 알리겠다는 포부다.

데뷔 약 1년 만에 히트곡 '거짓말'로 국민 그룹이 된 빅뱅보다 상승 속도가 빠르다. 음반 주문량도 첫 물량 3만장을 비롯해 발매 1주일 만에 추가 2만장 요청이 들어온 상태. 소녀시대, 포미닛 등 '걸그룹' 대란 속에서 돋보이는 독주다.

힙합을 바탕으로 레게와 R&B 등을 감각적으로 혼합한 음악, 개성이 뚜렷한 중성적인 패션 등은 벌써 '투애니원 스타일'로 통한다.

투애니원은 빠른 성장세의 일등공신으로 음반 프로듀싱을 맡은 그룹 원타임의 테디를 첫손에 꼽았다. 테디는 투애니원의 히트곡을 모두 썼고, 의상과 머리 스타일까지 꼼꼼히 챙겨 멤버들은 그를 '파파'라고 부른다.

리더 씨엘은 "'롤리팝'을 함께 부른 빅뱅 선배님 덕분에 우리 이름을 알렸지만 빠른 시간에 호응을 얻은 건 음악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며 "테디 선배님은 음악뿐 아니라, 빅뱅 지-드래곤 선배의 친구들인 두 스타일리스트와 함께 방송 전날 무대 의상까지 일일이 살펴주신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레게듀오 스토니스컹크의 쿠시도 작곡가로 합류한 이번 음반 수록곡들은 여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가사로 환영받고 있다.

R&B와 레게가 가미된 '아이 돈트 케어'는 남자의 이기적인 마음을 담은 태양의 솔로곡 '나만 바라봐'의 여자 버전으로 그런 남자에게 당당히 맞서겠다는 내용. "테디 선배님이 여자의 심리를 너무 잘 아셔서 알아 신기할 정도예요. 여자를 대변한 가사 덕택인지 '속 시원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여성 그룹에 비해 여자 팬들도 많은 편이죠."(멤버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중인 미성년자 공민지는 "뮤직비디오 촬영 때를 제외하고 클럽에 안 가봐서 '인 더 클럽'을 부를 때 다소 낯설고 공감하기 힘든 내용이었다"고 웃었다.

싱글로 활동하다 음반을 내자 수록곡 안에 멤버들의 매력도 잘 드러났다고 한다.

박봄은 "'인 더 클럽'에서 다라가 자신의 파트를 노래할 때 마치 정말 울듯이 불러 감탄했다"고, 씨엘은 "멜로디 라인을 이끄는 박봄의 가창력이 '롤리팝', '파이어'때보다 빛을 발했다"고 소개했다.

또 다라는 "'프리티 보이'에서 씨엘의 카리스마 넘치는 랩, '인 더 클럽'에서 흑인 남자 아이처럼 소화한 공민지의 랩을 귀담아 들어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음반 발매와 함께 멤버들에게는 큰 변화가 또 하나 있다. 1주일 전부터 서울 합정동에서 숙소생활을 시작했다. 한 건물 다른 층에 빅뱅, 소속사 양현석 대표도 산다.

올 여름 '걸그룹'이 쏟아져 치열해진 경쟁도 값진 경험이라고 입을 모은다.

"다른 여성 그룹들과 경쟁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도 영광이에요. 가요계에서 여성 파워가 강해지는 것 같아 반갑고요. 하지만 경쟁하는 마음보다 우리 음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무대에서 신나게 놀려고요."

/연합뉴스

드라마 '친구' 김 민 준

"연기인생 터닝포인트 마음껏 날아 봐야죠"

MBC 주말드라마 '친구, 우리들의 전설'(이하 '친구')에서 이준석 역으로 출연 중인 김민준(34)은 요즘 표정이 진지하다.

"곽경택 감독님이 제 연기 인생에서 '친구'가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친구'는 카메라 앞에서도 무섭지 않다고 겨우 느끼게 된 첫 작품이거든요. 이제 한번 날아보자는 생각이 들어요."

김민준은 자신이 준석 역으로 캐스팅된 이유를 곽경택 감독의 2007년 영화 '사랑'에서 찾았다. 그는 이 영화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악랄한 건달로 완벽하게 변신, '김민준의 재발견'이란 평을 받았다.

"히트 영화가 원작이라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사실 제가 기자라도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 그걸 악보에 비유하고 싶어요. 같은 악보라도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 느낌이 다르잖아요. 마치 '마이 웨이'라는 음악은 같지만 엘비스 프레슬리와 프랭크 시내트라가 부른 노래의 느낌이 각각 다른 것처럼 말이죠. 유오성 선배가 준석 역을 너무나 잘하셨지만 제가 연기하는 준석은 또 다를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원작을 의식하고 스트레스받는 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김민준은 준석이란 캐릭터를 완성하기 위해 얼굴에 선 굵은 주름을 만들고 물을 며칠 동안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클로즈업했을 때 눈빛 외에 어떤 것으로 준석을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이마에 석 삼(三)자와 미간의 내 천(川)자 모양의 주름, 턱에 복숭아씨 모양의 주름을 만들었어요. 그리곤 어떨 땐 삼자 주름만, 어떨 땐 삼자 주름 50%, 천자 주름 20%, 턱 주름 30%를 사용하자는 식으로 치밀하게 계산했죠. 준석의 거친 목소리를 위해 안 피우던 담배도 물기 시작했고요."

인터뷰를 하다 보니 한자릿수에 머무는 '친구'의 낮은 시청률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러갔다.

"촬영할 때 뷰파인더로 시청자들과 같은 화면을 보는 카메라 감독님께 드라마가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전부 다 좋다'라며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그만큼 현장에선 에너지가 넘쳤고 배우들과 제작진도 열심히 만들었어요. 단지 영화와 같다, 같지 않다로 드라마를 재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연합뉴스